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감사와 존경의 꽃을 드립니다

부모-자녀·스승-제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실용주의 사상으로 모든 가치가 도치된 오늘의 사회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자칫 진부하게 느껴지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 교훈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주일을 맞으면서 “네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 보면서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을

기쁘게 할 일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도록 하자.

아버지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된 자, 제자된 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와 배우는 자의 자세에 대해 묵상하고 다짐하며 실천하는 날로, 부모된 자와 선생된 자들은 청지기로서 그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부모를 잃은 자들을 기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잊지 말자.

오늘 교회와 각 부서에서는 아버지와 스승, 웃어른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가진다. 예배 전 교회 앞마당에서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어른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며, 여러 교회학교 학생들은 소망부를 찾아 위로잔치를 가질 예정이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이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찬양대에 매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감사전양 순서가 있었다. 이 자리에 활짝 핀 성도들은 어린이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였다.

“주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임박

호주, 피지, 뉴질랜드, 사이판, 서사모아 등 오세아니아주의 목회자 17명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목회자 12명이 참가하는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김치실행위원회는 공항영접에서부터 등록, 숙박, 식사 등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를 거의 마치고 개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또한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며 새벽기도회와 예배에는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실과 예배실의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김치신학세미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이번 주에 완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자.

- ▶참가자(들)를 위해
- 참가자들이 오고가는 과정을 잘 인도해 주시길
 -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 단순한 한국교회 방문이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되며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

- 도록
- 세미나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자국복음화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자국복음화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 각 나라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며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 세미나 기간동안 영육이 모두 강건하기를(음식의 차이, 시차 등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강사, 봉사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 강의하시는 분들이 성령충만하기를
-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 통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 성도들이 이 세미나를 여러가지 행사 중 하나 정도로만 기억하지 않도록
-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피곤치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교회ಗೆ 계속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동문회 제 3차 총회

13(월), 14(화) 양일간 광성교회훈련원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회장: 정경화 목사)는 13일(월)과 14일(화), 양일간 광성교회 훈련원에서 제 3차 총회를 갖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13일 오후7시에는 김형석 교수(연세대)가, 16일 오전에는 이종윤 목사가 각각 강의하며 강의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현재의 목회 방향과 동문회의 활동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총회에서 새 임원진 선출과 새로운 동문들을 위한 환영의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의 자격은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네 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게 주어진다.

창세기
강해

꿈과 계시

(창세기 40장 1 ~ 23절)

이종운 목사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항하는 선지자를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요나서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요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요나처럼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고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제 2인자가 되었습니다.

1. 환경의 사슬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었고 더욱이 그의 꿈 이야기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일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잠19:21). 요셉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창40:1 - 4). 보디발에게 팔린 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었고, 감옥에 들어가 바로의 신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부터 죄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환경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 꿈은 무엇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꿈 두개의 꿈에는 예언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감옥에 있는 애굽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한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해석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에게도 꿈을 주시어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사 7년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1 ~ 24절에서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꿈으로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 계시하신 경우는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와 다니엘서에 국한되어 나오며 신약성경에서는 6번 언급된 꿈의 이야기가 모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은 대개 신구약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1:1 - 2).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날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상태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계시는 오직 성경말씀뿐입니다.

3.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

요셉은 왕의 술 따르는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해몽을 듣기 전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에 싸여 있었습니다. 해몽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면서 거침없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강하게 한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덕분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한 것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두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인처럼 전 유럽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라”(벧전 4:7)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깊이를 안다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계시된 진리의 확실함을 말해야 합니다. 요셉이 떡 굽는 자의 해몽을 말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4.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설교의 초두를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요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욥2:9)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고백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찾아집니다. 술 따르는 이의 꿈을 해석한 후 요셉은 자기의 투옥이 부당한 것이니 잘못된 법집행을 바로에게 호소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복직하였으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사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가장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열매를 보아 알찌니”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열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거기에는 변명의 틈이 없다. 열매 그 자체로만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려내시는 이유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위함이다. 나무와 열매는 한통속이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가시나무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이 심으신 새로운 나무에서만 맺도록 되어 있다.

훌륭한 간판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맛을 내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자.

어머니 전상서

저도 어머니처럼

박경희(권사, 제 2교구)

어머니!

당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날아가는 갈가마귀라도 불러 먹이실만큼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셨던 어머니.

막내였던 저는 그 많은 사랑을 유독 더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저도 자식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장성하여 어머니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랑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백분지 일에 아니, 만분지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 생전의 나이와 가까와질수록

그 사랑은 골수에 사무치고 사모의 정은 더해만갑니다.

당신의 자식을 향한 모든 몸짓은 침묵 속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은 차라리 웅변이었습니다.

“모성은 위대한 것”이라는...

우리 6남매를 앓혀 놓으시고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교훈하셨던 어머니은

당신의 삶 자체가 그리하셨습니다.

57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당신에게서 흐트러진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언행일치의 삶으로 온유와 절제와 근신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그대로 본 보이셨습니다.

그릇된 일에 대해서는

몹서리치도록 무섭게 경계하시던 어머니의 가르침 덕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언행에 조심하며

제 자식들에게 바른 길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새벽마다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고 기도를 드리시던 당신의 모습은

제 가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떠나시던 날, 천봉지괴(天崩地壞)라 했던가요?

마치 제 삶도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간절히 드리시던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당신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친 세파를 이제껏 헤쳐왔고

제각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와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음은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남몰래 눈물흘리시며 간절히 드리시던

어머님의 그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더 실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모성애의 발현은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그리운 어머니!

1996년 어버이주일 아침에

당신이 제게 쏟아부은 사랑의 크기를 다시금 헤아리며

당신처럼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될 것을 다짐해봅니다.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8 - 참가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 면적 - 1,920,000Km².

■ 인구 - 195,623,000명(1995년도 현재)

■ 수도 - 자카르타

■ 종교 -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회교의 수적인 우세와 정치적인 힘은 종종 회교도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기독교의 확장을 제한하며, 공공생활 가운데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일에 행사되었다. 그러므로 공적인 복음전도에는 다소 제재가 따른다.

■ 인도네시아는 지금 -

① **교회와 놀라운 성장** -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과거 30년에 걸쳐 가속화되어 왔다.

② **자비선회 영적인 전투** - 자비섬은 영적 영향력이 매우 큰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심이 강하게 이는 반면 기독교 인을 축출하기 위한 회교도의 활동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③ **고무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비전** -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의 배경은 독특하며 세계복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모든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모든 종족집단에 생명력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④ **영적 성숙을 위하여** -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도력을 개발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자.



말레이시아

(Malaysia)

■ 면적 - 330,000Km².

■ 인구 - 19,186,000명(1995년도 현재)

■ 수도 - 콰라룸푸르

■ 종교 - 수니파회교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특혜를 받으며, 회교도가 소수인 동부말레이시아에는 종교적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보장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회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령(精靈)을 숭배하던 부족민과 중국인을 회교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지금 -

① **회교도의 세력** - 회교도가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회교도들에 대한 회교도의 선교활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차별적인 법안과 조치가 가해지고 있다. 어떤 주는 회교법을 강요하기도 한다.

② **받혀받는 기독교** - 모든 비회교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과 기독교 모임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용기를 갖고 모순과 불의에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③ **DAWN(Discipling A Whole Nation)운동** - 1992년 14개 교단에 의해 열정적으로 시작된 이운동이 교회배가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자. 또한 지도자 훈련과 열매를 맺고 있는 청년사역, 필요한 문서사역 등을 위해 기도하자.

21세기를 향한 **선교·교육·봉사대회** 6월 3일부터 명성교회당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선교·교육·봉사대회'를 갖는다. 전국 교회 목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에서 주제강연은 이종성 박사, 특강은 이종윤 목사, 저녁 집회는 박선희 목사 와 김삼환 목사, 새벽기도회는 나겸일 목사 와 이용남 목사가 각각 담당한다.

총회에서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총회의 방향설정과 교회갱신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의 교회 가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잔나 웨슬레의 자녀교육 규칙

“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기도를 가르치라”

열 아홉 자녀를 두었던 스잔나 웨슬레는

자녀들의 옷을 손수 만들고, 세탁하고, 자녀들의 교사가 되기도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한 시간씩의 기도시간을 가졌었다고 한다. 그녀의 아들 가운데 유명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있었음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1.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2. 아이들은 밤 여덟시 전에 재워라
3. 아이들이 투덜대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해라.
4.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라.
5.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6.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에 그것을 주라.
7. 거짓말하는 것을 막으라.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한 과오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8.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9.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두 번 벌하지 말라.
10.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을 주라.
11.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라.
12. 극히 작은 물건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명백히 해 두어라.
13. 모든 약속을 엄격히 지켜라.
14. 딸이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일을 시키지 말라.
15. 아이들에게 매가 무서운 것임을 가르치라.



길동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O...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이부터 성인이되기까지 깨어 있는 시간은 105,000시간인데 그 중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1,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000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97,000시간이라고 한다. 백분율로 따지면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도 채 안되며, 7%는 학교에서, 92%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으며 따라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터가 가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사시사철 봄바람이 부는 훈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를 다시금 생각해보자.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 가정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가정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자.

목회자·교우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5일 오전에 한남기독교실업인회 진도초청집회, 오후에는 서울여대 교육연구용시설 기공식에서 각각 설교한다. 또한 16일에는 햇불선교회 애곡목회자 초청세미나에서 강의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 연구위원 모임을 갖는다.
- * 맹준호·원종숙 성도(2교구 역삼 2다락방)는 4월 23일 득남하였다.
- * 정무균·이영희 집사(2교구 역삼 3다락방)는 5월 6일 청담동에 ‘우리밀 갈국수’를 개업하였다.
- * 윤종덕·안성희 성도(10교구 둔촌다락방)는 5월 6일에 득남하였다.
- * 박정수 성도(12교구 분당 1다락방, 박민호·정혜진 집사 아들)은 5월 9일에 군입대한다.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⑧ 5월 2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대중문화와 교회 (전대련 박사)
- ⑩ 5월 2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급변하는 사회와 21세기 비전(이원설 박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심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슬픔을 초월**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2.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3.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와질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